제1강 만주지역의 신화와 우리 신화(1)

*** 들어가는 말 : 동아시아 지역의 신화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1. 동아시아에 신화가 있나?

2. 신화가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3. 그 신화의 내용들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나?

4. 동아시아 신화, 신화학의 현재 상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가. 만주 신화에 나타난 어둠의 신과 빛의 신의 대립

만주족은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전승하고 있다. 현재 『설부』라는 제목으로 채록되어 수집된 것만 해도 수십 권이 나와 있다. 그 이야기책들 속에는 만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전승해온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고, 그 안에는 우리와 관련된, 그러면서도 독특한 많은 코드들이 숨어있다.

우리의 서사무가에 해당하는 만주족의 창세서사시 『우처구우러번(천궁대전/ 신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기본 구도는 창세여신이자 천신인 아부카허허, 그리고 아부카허허의 몸에서 탄생한 별자리의 여신 와러두허허, 땅의 여신 바나무허허를 비롯한 수많은 여신들이 어둠의 신인 예루리와 싸우는 것이다. 만주족 신화에는 무려 300여 명의 여신들이 등장한다.

(1) 여신들의 탄생과 인간 창조

천모(天母) 아부카허허(아부카= '하늘', 허허='여신'(여음女陰 + 버드나무))

→ 물거품에서 태어나는 여신, 빛과 온기의 상징

별자리여신 와러두허허

지모(地母)신 바나무허허

→ 세 명의 여신이 힘을 합해 여성과 남성을 만들다.

(2) 어둠의 신 예루리의 탄생

바나무허허를 지키는 머리 아홉 개 달린 여신 오친이 바나무허허가 던진 두 개의 돌에 맞아 뿔과 남성 생식기가 달린 양성의 신 예루리로 변하다.

(3) 아부카허허와 예루리의 싸움(빛과 어둠의 대립)

* 와러두허허의 자작나무 주머니에 가득 찬 별자리들.

* 하얀 얼음으로 온 세상을 덮으려는 예루리와 그것을 녹이려는 아부카허허

(생명/ 온기/ 봄/ 빛/ 흰색- 아부카허허/ 죽음/ 한기/ 겨울/ 어둠/ 검은색-예루리)

* 머리 아홉 개 달린 예루리의 강한 위력 때문에 와러두허허와 바나무허허가 상처를 입고 세상이 어두워진다. 그러나 바람의 여신이 날린 바위에 맞아 땅속으로 도망치는 예루리.

예루리의 수많은 분신들 때문에 속아서 얼음 속에 갇힌 아부카허허, 불돌을 먹여 아부카허허를 구해준 두카허,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려 강과 삼림이 된 아부카허허

* 불의 여신 투무의 불꽃 머리카락이 별로 변하고, 투무는 하얀 돌로 변해 하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다.

* 북두칠성의 여신 나단, 하늘을 밝히다/ 빛 화살로 예루리의 눈을 찌르는 고슴도치여신/ 무서운 북풍으로 변해버린 바람의 여신 시스린/ 신의 새 쿤저러가 태양 강물을 길어오다/

(4) 땅 속으로 숨어버린 예루리

아홉 개 머리 중 다섯 개의 눈이 뽑힌 채 땅 속으로 숨은 예루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 가장 추운 1월, 쑹화강 가에 있는 하얼빈에서 열리는 <빙등절(氷燈節)> 축제의 유래는?

(5) 최초의 여 샤먼의 탄생

매 여신이 젖을 먹여 키운 유일한 여자 아이가 최초의 여 샤먼이 되고 인류의 시조신이 되다.

→ 샤먼의 의상, 어깨 위에 앉은 새와 모자에 앉은 새는?

► 이 이야기에서 빛의 신 아부카허허와 어둠의 신 예루리의 밀고 밀리는 싸움은 북방 초원 지역에 폭넓게 전승되고 있는 영웅 서사시 『게세르』와 그 구도가 매우 흡사하다. 몽골, 시베리아, 티베트까지 퍼져있는 이 영웅서사시의 주인공 게세르는 빛의 천신들을 대표한다. 그가 도탄에 빠진 인간을 구해주기 위해 천신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지상으로 내려오고, 역시

지상으로 내려온 어둠의 마법사 갈 둘메와 길고 긴 싸움을 하게 된다. 어둠과 빛의 대립, 매우 익숙한 구도가 아닌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유라시아 대륙 이곳저곳에 나타나는 걸까? 그것은 북방의 자연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나. 만주의 자연이 만들어낸 신화들- 곰 신화와 '웅녀'

(1) 만주의 자연환경과 곰 신화

중국 헤이룽장성 서부, 대흥안령(다싱안링)산맥을 경계로 하여 그 서쪽은 내몽골초원, 동쪽은 만주. 대흥안령과 소흥안령(샤오싱안링) 산맥을 품고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던 민족에게 있어서 '수렵'은 중요한 생활 방식. 수렵의 대상이 되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 숲의 주인이라고 여겨지는 산신 신앙 등은 매우 중요하다.

수렵민족과 곰/호랑이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곰 사냥과 의례, 토템과 금기.

(2) 퉁구스 계통 민족들의 곰 신화

* 에벤키족의 곰 신화와 의례

  오로첸족의 곰 신화

  아이누족의 곰 의례(이오만테-곰의 영혼 돌려보내기)

* 곰 신화와 의례가 내포하는 '에콜로지 철학'

  곰을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곰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의 요구에서 금기들이 생겨나지만 그것은 또한 생태환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 곰과 인간의 혼인 이야기는 보통 '이류혼인담'이라고 불리지만,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깊은 성찰이 들어있는 신화이다.

* 오로첸족의 곰 신화와 우리나라 곰나루(웅진) 전설의 차이점은?

참고문헌:

김재용・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동아시아)

신동흔, 『살아있는 우리 신화』(한겨레)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한겨레)

김선자, 『중국 소수민족 신화기행』(안티쿠스)

김선자, 『오래된 지혜』(어크로스)

이평래 등, 『동북아 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동북아역사재단)

나카자와 신이치 지음, 김옥희 옮김, 『곰에서 왕으로』(동아시아)